



지난달 30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 시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생적 방산 생태계 강화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공식 출범

도내 68개 방산기업 참여... 민간 주도 협력체계 첫걸음
산·학·연·관 연계 통한 방산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협의회는 도내 방위산업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준비 중인 68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해 구성됐으며,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출범은 전북 지역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산업계·학계·연구기관·관공서)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방산기업 간의 공동 성장과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사업 추진 등 연대 협력을 통해 전북 방위산업 생태계

의 기반을 다지고, 산·학·연·관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북을 지속 가능한 국방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전세희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최석구 전북국방벤처센터장 등 주요 인사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그리고 협약기업 대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협의회 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는 (주)한실퍼럴 박연옥 대표가 선임됐으며, (주)바르텍에너지 구철호 대표, 이스퀼 (주)이법철 대표, (주)옥타힐즈 김동현 대표가 부회장을 맡았다. 박연옥 협의회장은 "방산기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제휴 및 공동 사업을 확대해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 출범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경쟁력 있는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이번 협의회 출범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전북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주시는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기업들과 함께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 출범을 주도한 전북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제 발굴, 기술 지원, 시험·인증, 사업화, 홍보 등 전 주기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최호성씨,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부 장원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부분 대목 열창
국악계 최고 상금 수상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최호성 씨(38)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부분 대목을 열창한 최호성 씨가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7,0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본선대회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장원인 최호성 씨를 포함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부문별 장원자는 △농악부 중앙타악연희단(국회의장상) △무용 명인부 박자은(국무총리상) △민요 명인부 김리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법 명고부 김영주(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가야금병창 명인부 박지원(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기악부 이동건(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무용 일반부 동우진(대회장 전주시장상) △판소리 일반부 김승국(대회장 전주시장상) △시조부 최한규((주)문화방송사장상) △무용 전공부 이가원(대회장 전주시장상) △고법 일반부 천선우(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공도



지난달 3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최호성씨가 깃발을 들어올리고 있다.

부 박병수(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등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학생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부 김현서(교육부장관상) △농악부 국립전통예술중학교(대선문화재단이사장상) △관악부 서수연(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현악부 김태연(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무용부 김연진(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법부 이준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민요부 박세인(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가야금병창부 김은채(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시조 초등부 이로하(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판소리초등부

(저학년) 이승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학생이 각 부문별 장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와 함께 지난달 7일 공도부 대회를 시작으로 이날 본선까지 24일간 진행됐으며,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대사습청, 한국전통문화전당, 우진문화공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 천양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경연이 이뤄졌다. 판소리명창부 장원 최호성씨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항상 다듬질해가며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권희정 기자

창업기업 스케일업... '벤처투자 라운드' 시동

도, 전북창조경제센터와 '초기 창업생태계 구축' 라운드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30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의 첫 행사로 '초기 창업생태계 구축' 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투자사, TFS 운영

사, 정책출자기관, 스타트업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IR 피칭 외에도 투자사 밋업, 전북 정책 소개, 후속 라운드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플랫폼은 민선8기에서 확대 조성 중인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실질적인 운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벤처기업이 수도권 중심의 민간 투자 생태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전북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 사업의 첫 무대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도권 벤처캐피탈(VC)과 직접 만나 실전 IR(기업설명회)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투자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IR 발표에 이어 투자사 밋업이 진행됐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부 기업에 대해 투자사로부터 '투자검토의향서'를 수령하고 전북자치도와 함께 후속 연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